‘2036 미래발전전략’ 청사진

임실군, 수립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 가져… 59개 사업 3.8조 규모 사업 구체화

임실군이 향후 10년을 향해 나아갈 3조8천억 규모의 ‘임실군 2036미래발전전략’ 청사진을 공개, 본격적인 추진에 돌입했다.

군은 최근 ‘2036 임실군 미래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열고, 앞으로 10년을 이끌 미래 비전과 분야별 핵심사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임실군 전역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경제, 문화·스포츠, 관광, 지역개발·SOC, 복지 등 군정 전반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대내외 환경변화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임실미래비전 2026 수정계획’ 수립 이후 달라진 정책기조를 반영한 새로운 미래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임실만의 차별화된 대표 전략과제와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을 발굴해 단계별 실행계획과 투자·재원조달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에는 군민과 관계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AHP 분석 결과가 반영됐다. 조사결과 군민들은 임실군이 ‘성장·균형·협력’을 핵심가치로 ‘군민행복’을 중심에 둔 ‘휴양관광’과 ‘농생명·식품’ 도시로 성장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책 중요도에서는 농업·농촌과 산업·경제 분야가 높게 나타났으며, 산업·경제 분야는 우선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한 영역으로 분석됐다.

임실군은 최근 ‘2036 임실군 미래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열고, 앞으로 10년을 이끌 미래 비전과 분야별 핵심사업을 점검했다.

보고회에서는 임실군의 중장기 목표도 함께 제시됐다. 임실군은 2036년까지 지속가능 인구 2만5천명, 지역내총생산 1조2천억원, 재정자립도 2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주거와 정주여건 개선, 생활서비스 거점 육성, 사람·기업·자원이 융복합하는 산업생태계 조성, 생활인구 활동기반 확충 등을 핵심 방향으로 제안했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화, 미래세대 육성, 지속가능한 농촌 활력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식품산업과 산업·경제 분야는 임실치즈 산업 고도화, 기능성 유가공 그린바이오, 반려동물 연관산업 및 펫푸드 산업 육성, 농공단지 활력 제고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새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관광 분야는 옥정호와 치즈테마파크, 오수의견 관광지 등을 연계한 체류형 명품관광지 조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지역개발·SOC와 복지 분야에서는 읍면 생활인프라 확충, 교통 접근성 개선, 임실형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 등 군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담았다.

이번 중간보고안에는 총 8개 분야, 59개 사업, 3조 7,940억 규모의 사업이 반영됐다.

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핵심사업을 구체화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임실=진흥영 기자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 추진

남원시, 남원용성고와 컨소시엄 업무협약 체결

남원시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인 스마트농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남원용성고등학교와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지난 17일 ‘2026년 협약형 특성화고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전북도, 도 교육청, 남원시, 남원용성고, 폴리텍대학교 전북캠퍼스,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전북산학융합원, 한국농업마이스터협회 전북도지회, 한국농업기계학회, ㈜티에스팜, ㈜팜한농, 원푸드, 남원청년농업인연합청년지음, 지리산처럼영농조합법인 등 총 14개 산·학·연 그리고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노력을 다짐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기업-특성화고가 협약을 맺고 지역 밀착형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부 주관의 공모사업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25년부터 남원용성고, 전북테크노파크 등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스마트 농업 SW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남원용성고는 교육부의 ‘2025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을 통해 스마트팜과, 드론팜테크과, 카페플라워과로 학과 개편을 마쳤으며, 전북에서 유일하게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 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약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전국적인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시는 공모를 통해 스마트팜 산업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해 정착할 수 있는 ‘교육-취업-정주’ 선순환 시스템 구축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반려견 전용열차 ‘임실N펫스타 댕댕트레인’ 운영

임실군이 오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2026 임실N펫스타’를 앞두고, 반려견과 함께 떠나는 특별 전용 열차 상품인 ‘임실N펫스타 댕댕트레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댕댕트레인은 축제 이튿날인 5월 2일 단 하루 운영되는 특별 관광상품으로, 코레일 전북본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반려동물 전문 여행사 ㈜펫츠고트래블과의 협업을 통해 반려인들이 장거리 운전의 부담 없이 축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열차는 총 6량, 428석 규모의 임시열차로 운행되며, 5월 2일 오전 7시 30분경 서울역을 출발해 영등포·수원·평택·천안·서대전·익산역을 거쳐 오전 11시경 임실역에 도착한다.

열차 좌석은 반려인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반려견 좌석을 포함해 1인 2좌석을 제공하며, 전 일정에 반려동물 전문 여행가이드가 동행해 안전관리와 케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반려인들이 보다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열차 이용객들은 임실 도착 후 임실치즈테마파크로 이동해 임실치즈를 활용한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즐긴 뒤, 유럽풍 건물과 드넓은 초지가 어우러진 관광지 일대에서 반려견과 함께 자유로운 산책을 만끽할 예정이다.

해당 상품은 선착순 200명을 모집하며, 예약 및 자세한 사항은 펫츠고트래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실=진흥영 기자

춘향제 기간 즐기는 ‘미꾸야 놀자’

남원농기센터·남원 추어식품 클러스터사업단, 체험 행사 진행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와 남원 추어식품 클러스터사업단은 제96회 춘향제 기간인 오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요천 수경 물놀이시설에서 ‘미꾸야 놀자’ 행사를 추진한다.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약 600m 규모의 수변 시설을 활용한 미꾸리 잡기 체험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또한 △미꾸야 캐릭터를 활용한 꼴라쥬 쿠키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달고나 만들기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며, 풍성한 먹거리 시식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체험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는 추어식품 클러스터사업단이 자체 개발한 추어 한판불고기, 추어 납작만두, 미꾸야 꾸이랑과 젤리 등 영양가 높은 간식거리가 제공된다.

또한, 행사장 내 홍보존을 운영해 남원 추어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미꾸야와 추냥이 조형물을 활용한 야간 포토존을 운영해 낮과 밤이 모두 즐거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남원 미꾸리 산업의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한다.

남원시는 춘향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추어육개장, 추어해장국, 추어해물전골, 추어탕블럭, 미꾸야 자일리톨 캔디 등 일상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추어 가공식품을 집중 홍보하여 실질적인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섬진강 수상레저기구 무료 체험교실 운영

순창군은 군민과 관광객이 수상레저를 쉽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6월 7일까지 유등면 화탄마을 앞 섬진강변에서 ‘수상레저기구 체험교실’을 무료로 운영한다.

체험교실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순창군이 후원하고 섬진강수상레저연맹이 주관하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참가자는 전문 래프팅 가이드로부터 수상 안전교육과 노 젓는 방법을 배운 뒤 카누와 카약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체험 신청은 섬진강수상레저연맹(063-652-6520)으로 사전 전화 예약하면 된다. 체험은 시간대별 20명씩, 하루 최대 100명까지 이용 가능하며, 예약 인원이 부족할 경우 현장 방문객도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의회 청소년 의회 교실 운영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는 지난 17일 도통초를 시작으로 2026년 청소년 의회 교실 운영에 들어갔다.

청소년 의회 교실은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 소개 △본회의 체험 △의회 시설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한 학생들은 1일 시의원이 되어 청소년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찬반 토론과 표결을 통한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을 체험하게 된다.

남원시의회 김한수 부의장은 “의회는 시민의 뜻을 모아 지역의 중요한 일을 함께 결정하는 곳으로,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토론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운영

순창군은 군민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오는 30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군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을 돕고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과정은 △병원동행매니저 1급 과정 △AI 시니어교육 전문지도사 과정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과정 등 3개 과정이며, 과정별 15명 내외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은 오는 5월부터 6월 사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청년문화센터와 여성회관 등에서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의료서비스 이해와 실무 돌봄 기술, 노인 심리와 생성형 AI 기초 및 디지털 교수법, 반려동물 행동교정과 관련 법률·관리 교육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신청 대상은 순창군민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 방문 또는 이메일(suhyeong8798@korea.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교재비와 재료비, 자격증 발급 비용 등은 일부 자부담이다. /순창=이양원 기자